

《우리》와 《나》

얼마전 취재길을 이어가던 기자는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며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집집마다 김치맛이 다르네 자기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웃들끼리 제 집의 김치를 주고받으며 맛보는 재미 또한 좋답니다.》

보편 불수룩, 들으면 들을수록 민족적정서가 한껏 넘쳐나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지는 하는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같은 인민반에 사는 한가정을 위해 저마다 떨쳐나 일관을 벌려놓은 이웃들을 본 일이 떠올랐다.

누구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장을 내리우고 누구는 물탈을 이기고 또 누구는 금이 갈래라 유리를 정회 받쳐놓고 창문에 끼워넣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기자는 겉을 넘쳐넘어 오르는 마음을 감지할 수 없었다.

남의 집일에 제 집처럼 떨쳐나 한껏 바람이 스며들어서라, 눈비에 젖어들어서라 원심을 쓰며 정성다해 도와주는 그들이야말로 인정 많은 이웃들이었다. 그들속에는 바쁜 속에서도 우정 시

간을 내어 온 사람도 있었고 불편한 몸이지만 남편이 달려온 너그로 있었다.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 기자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같이 사는 이웃들

라정한 이웃들

끼리 돕는것이 옹당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들끼리 서로 돕는것을 옹당함으로 여기는 이들을 소개해 줄게요.

병원에 입원하여 군대에 나가 아들, 딸을 바래주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저마다 어머니, 누이가 되어 여친까지 달려나간 이 야기,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픈 소리가 들리면 안도하고 많은 약제들도 마련해주며 정성을 쏟아주는 사실들, 그것은 어렵고 힘든 매일수룩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과 정은 삶의 향이고 행복의 기초이다. 사랑과정이 넘치는 곳에서는 서로 위하고 아껴주는 인간다운 생활이 흐르기 마련이다. 《나》보다 《우리》가 우선시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것을 고상한 미덕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훌륭한가는 모습에 대해 더더욱 그렇다. 아름다운 소행, 아름다운 소행으로 추앙되어왔다. 하지만 《우리》라는 말보다 《나》라는 말이 우선시 되는 사회, 극단한 개인주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당연한것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미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본시기자 황금속**

오늘날 자본주의나라에서 피로를 몰고 일어나는 살인사건들과 충격사건들, 친혈육간에도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것과 같은 말세적인 풍조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라는 부름과 함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통을 함께 헤쳐나가는 미덕이 공기처럼 차호르는 공화국과 저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것은 서로서서 않는 편이 한 현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기에 공화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저저마다 《조선은 인간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나라》, 《인간의 본체가 살아숨쉬는 사회》라고 격찬하고있는것이다. **본시기자 황금속**

기자가 눈으로 본 현장은 참혹했다. 100년이 넘는 청년고독사현장을 다녀온 특수정소부 K씨는 《마지막순간까지도 고통받으며 몸부림치고 인을 떠올리며 마음속이나마 마지막판심과 위로를 건네군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서울주요구의 7평짜리 작은 방에

서 30대녀성 B씨가 숨진채 발견되었다. 직장을 잃고 인과 헤어진 B씨는 한달가까이 식음을 전폐한채 이웃집에 들릴만큼 목숨을 애폠었다. 울며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줬다면...

고독사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경찰이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밝히는 배경은 대개 사업실패나 건강악화, 경제적이러움인 원인이 다. 이 모든 원인은 《신변비판》으로 간단히 정리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비판으로 책임을 돌릴수 없는것은 그 리면에 우리 사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이 깔려있기때문이다. 고독사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와주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는 없다. 중앙경찰청에 방첩타방을 치는 한 고독사는 《이들에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구호할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시기자**

기자가 눈으로 본 현장은 참혹했다. 100년이 넘는 청년고독사현장을 다녀온 특수정소부 K씨는 《마지막순간까지도 고통받으며 몸부림치고 인을 떠올리며 마음속이나마 마지막판심과 위로를 건네군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서울주요구의 7평짜리 작은 방에

울며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줬다면...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열악한 조건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독사도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지난 8월 4일 인천 영종도의 작은 아파트방벽에 걸린 달력은 6월에 머물러있었다. 방 한쪽에는 부탄가스통 10여개와 빈 소주병 10여개가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30대남성 A씨는 구단전선력을 하고 두달이 지나 발견되었다. 그가 남긴 물품더미엔 《서러운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기자가 눈으로 본 현장은 참혹했다. 100년이 넘는 청년고독사현장을 다녀온 특수정소부 K씨는 《마지막순간까지도 고통받으며 몸부림치고 인을 떠올리며 마음속이나마 마지막판심과 위로를 건네군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서울주요구의 7평짜리 작은 방에

학계의 이목을 모으는 청년과학자들

세계와 당당히 겨루고 세계를 압도할 배정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돌파하기 위해 두뇌전, 실력전을 벌이고있는 과학자들속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청년과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대학의 최용선연구사는 학술적의의가 큰 미량방정플라즈마특성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구현한것으로 하여 학계의 이목을 모으고있는 청년과학자이다.

대학시절부터 첨단과학분야인 플라즈마공학에 흥미를 가지고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온 그는 물리공학부 플라즈마연구실에서 연구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발명증서와 교육과학성과등록증을 비롯한 10여개의 증서를 수여받았다.

최근에는 플라즈마용수기공을 정밀기계공예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교육과 생산현장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진척시켜 과학기술발전과 실업현상극복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다국어소유자이기도 한 그는 대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실적이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하고 전국에 도입 일반화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현재는 연신, 압연, 단조, 절단 등 금속가공공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연속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연구과제를 맡아 연구 고심하던 탐구전을 벌이고 있다. **본시기자 림광훈**

대학의 최용선연구사도 유색금속합금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국내외 자원에 의거하는 새 재료를 개발하였으며 실적이고 우월한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였다.



최용선연구사

그는 대학 재료과학기술학부 금속재료연구실에 망라되어 합금원소들을 적게 쓰면서 기계적성질이 좋은 합금강을 개발할수 있는 미량원소합금화 등 수많은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증을 비롯한 10여개의 증서를 수여받았다. 다국어소유자이기도 한 그는 대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실적이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하고 전국에 도입 일반화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현재는 연신, 압연, 단조, 절단 등 금속가공공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연속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연구과제를 맡아 연구 고심하던 탐구전을 벌이고 있다. **본시기자 림광훈**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족

인정의 화원에 태어난 또 한명의 《처녀어머니》

몇해전 공화국의 신문과 방송, TV로는 하반신마비가 왔던 동해학원의 한 인원이 침상에서 일어나 대지를 활보한 소식이 전해졌다.

10대의 소녀처럼은 안경, 사수후 정심이의 상태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관심속에 있었다. 당시 동해학원에서 원아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던 최선희는 정심이의 간호를 전적으로 맡아안았다.

정심이가 깨없이 열이 날때면 그의 침상에서 꼬박 밤을 새우곤 했고 입맛을 잃을 때면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던 그녀였다. 최선희는 밤이 되면 어린 정심이를 품에 꼭껴안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날 밤 정심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물려드는 졸음에 깨닫고 잠이 들었던 최선희는 얼굴에 와닿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게 되었다. 얼굴에 실린 어린 손, 고운 눈에 가랑가랑 맺혀있는 눈물...

불현듯 정심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선희는 그제서야 어린 가슴에 소중히 간직된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없이 정심이를 꼭 껴안았다. ...이렇게 되어 그후 정심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처녀어머니》 최선희와 함께 평양행에 올랐다.

어머니가 되는 쉬워도 어머니수발을 하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다. 모든것을 각오하고 맨 곁을 지키지만 그 한결같은정성은 순탄하지 않았다. 평양의 학대학병원에서 전문병원으로, 또 옥류아동병원으로... 정심이의 건강회복을 위해 마쳐진 최선희의 정성에는 끝이 없었다.

깊은 밤 정심이의 병이 도져 병원으로 뛰어간적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입원생활기간에는 늦은 퇴근길에도 어김없이 들러 병상대를 알아보고서야 마음을 놓곤 하였다. 어느날 밤이 깊어 선희가 정심이와 함께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였다.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정심이가 선희에게 이렇게 속삭이었다. 《어머니, 나도 앞으로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건강을 추켜세우기도 어려운데 정심이의 마음에는 대학교정이 벌써 자리잡고있던것이다.

그후 최선희의 일과에는 치료시간과 함께 학습시간이 새로 생겨났다. 선희는 정심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그려보며 스스로 학교선생님들의 《제자》가 되었고 밤이 깊도록 딸에게 어려운 수학문제풀이를 배우고 물리와 화학학습도 함께 하였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정심이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퇴근후이면 의뢰해 정심이의 집을 찾았다. 정심이를 위해 어머니의 진정을 다 바쳐가는 최선희의 집으로는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웃들은 별일이 생기면 먼저 정심이의 집을 찾았고 나이다, 사는 곳도, 하는 일도 각이한 사람들이 《우리 정심이》라고 부르며 오후 학교용품, 수많은 약들과 식료품들을 들고 찾아오곤 하였다.

1월 10일은 정심이의 생일날이다. 그 생일도 정심이는 병원의 침상에서 쇠겨 되었다. 생일음식들을 안고 병원에

다달은 선희는 뜻밖의 광경에 놀랐다. 정심이가 있는 입원실의 넓다란 상에 주머니 펼쳐진 모자가지 음식들, 그 두리에 모여서있는 의사, 간호원들...

결국 자기보다 먼저 병원의 의료원들이 정심이의 생일상을 차려준것이었다. 그날 정심이는 사진도 많이 찍었다. 어머니와도 찍고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과도 찍었다.

이날의 생일축하원은 정심이가 부른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날의 생일축하원은 정심이가 부른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로 절정을 이루었다.

발문기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며

어머니께 삼가 드릴 꽃송이 엮으려니 손 닳도록 쓰다듬어주며 키운 정 사무침입니다

요즘 공화국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려지는 노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의 구절들이다.

이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느라면 자식들앞에 몇몇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시각도 깨끗한 량심과 아낌없는 헌신, 사심없는 사랑을 바쳐가는 공화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속에는 평양의학대학 림

상제2의학부 안과학강좌 박사 키위준 어머니였다. 자기들뿐 아니라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어머니였다.

자식들의 축복을 받는 어순옥선생의 눈가에서 맑은것이 흘러내렸다.

방벽면에는 수직건의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어순옥선생이 받은 많은 훈장들과 메달, 증서들이 걸려있었다. 어순옥선생이 의학자의 첫걸음을 내딛은 때로부터 어린 40여년들이 흘렀다고 한다. 그 날들에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연구사업을 자진하여 맡아안았던 적도 있었고 육체적파로로 인해 쓰러지기도 있었다.

반복되는 실험과 겹쳐드는 실패는 그의 심신을 무겁게 압박하였다.

《정말 힘겨운 로정이였습니다. 너무나도 품이 많이 들고 끝도 보이지 않는 연구사업이여서 지쳐있고싶을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자식들에게 몇몇한 어머니가 되는 길이고 의학자의 량심을 지키는 예국의 길

이기에 자신을 다잡고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수많은 논문들과 《최진구금의료봉사》, 《전신질병과 눈》, 《근시와 예방》, 《안과약물》과 같은 도서들과 참고서들은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걸은 그 길을 함께 추억하며 자식들이 부르는 노래의 선율이 울려다.

모진 고향을 달계 여기며 행복만 주고도 어머니사랑을 갈수록 뜨겁고 왜 그리 끝이 없던지는 세상 다 듣게 웨치고 싶어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은 나라 인민이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의 품을 떠나오늘의 이 행복을 어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자식들앞에 몇몇하게 내세워주고 언제나 바른 길로 가도록 따듯이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당을 우러

러치는 심정의 이 고백은 어욱순녀성의 가정에서만 울린 부름이 아니었다.

천만자식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열과 정을 갚고리 바쳐가는 어머니당에 삼가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는 은 나라 가정들에서도 뜨겁게 울려다.

본시기자 김진혁



이날의 생일축하원은 정심이가 부른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로 절정을 이루었다.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2)

세상에 처 hinweg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이 필모 상상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굳어있고있다.

하지만 북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바라보는 국세청이나 세무국이라는 《피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원이라는 직업도 없고 해마다 바치는 세금보고서도 없다.

북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시기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고 한편의 돈이 그림판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세를 30%나 낮추고 농민들의 현물세물도 대폭 낮추도록 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조가 완성되고 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먼저 농민들이 바치던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까지에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셨다.

1973년에 이르러 북의 국가예산수입에서 98.1%는 사회주의경리로부터 얻은것이었고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은 1.9%에 불과하였다.

바야흐로 려사의 기적이 태어난 순간이 다가왔다.

인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영월히 해방시키기 위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72년에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넓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다.》(제33조)라고 규정하시였고 그후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철폐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고 그후 3월이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그것을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다》로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세계의 광범한 신문들은 《조선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조선은 4월1일부터 세금을 받지 않는다》, 《조선인민 세금에서 완전히 해방》, 《세상에서 세금을 철폐한 첫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 의의를 대서특필하였다.

세금이 없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 정확히 리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 될것이다. 지금까지 50여년전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학습생들과 토론문제와 관련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먼저 농민들이 바치던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까지에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셨다.

1973년에 이르러 북의 국가예산수입에서 98.1%는 사회주의경리로부터 얻은것이었고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은 1.9%에 불과하였다. 바야흐로 려사의 기적이 태어난 순간이 다가왔다.

북의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경제적인 주인이 되어 사회와 경제발전에 참가해 기여하고있으니 세금이 필요없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세금제도는 인민의 어머니,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북인민들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으로 되었다. **재기나다동포 이상명**

독자문답

재미동로 리일경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어떻게 배정받는가

공화국에서는 자본주의나라에서 웬만큼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자기 힘 들어하는 고급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이든 한 톨만들지 않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평양의 현대적인 창건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그 어디가든 돈과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살림집을 받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민수대거리를 놓고보아도 고급아파트들이 일떠설 당시 외국어 연료들은 당시 좋은 이곳에서 아마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살게 될것이다.》라고 제 나름의 억측을 내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만수대거리의 고급살림집들은 로동자, 과학자, 교원들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입사하였고 철거세대들이 한세대도 빼지없이 새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받았다.

이 살게 될것이다.》라고 제 나름의 억측을 내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만수대거리의 고급살림집들은 로동자, 과학자, 교원들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입사하였고 철거세대들이 한세대도 빼지없이 새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받았다.

집값과 집세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기에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방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면서 이 나라에서

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온갖 국가적책속에 살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사회정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현대적인 거리들에 줄지어 늘어진 초고층살림집들에서 교원, 과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는 현실에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국가가 회한한 새 살림집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안고주는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조선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본시기자